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있는가

비구니가 물었다.  
“비밀한 뜻이란 어떤 것입니까?”  
조주 스님은 비구니의 손을 잡았다.  
“노스님께서는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너야말로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인가?”

尼問 如何是密密意 師以手拈之 云和尚猶有者箇在 師云 是你有者箇

하루는 부처님이 설법하는데 일진공공이 몰아치더니 하늘에서 꽃비가 휘날렸다. 그 중에 꽃 한 송이가 부처님의 법상 앞에 툭 떨어졌다. 부처님은 꽃을 집어 들고 대중에게 보였는데 모두 어리둥절하게 생각했다. 그런데 그때 가슴조차만은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그러자 부처님은 나의 “정법안장 열반묘심(正法眼藏涅槃妙心)을 마하가섭에게 전한다”라고 말씀하셨다. 즉, ‘나의 법을 마하가섭에게 전하노라’라는 선언이다. 그 후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자, 가슴이 교단을 통솔하고 설법하게 됐다. 제2대 부다가 된 것이다. 부처님이 꽃을 들었을 때 마하가섭은 무엇을 본 것일까, 또 부처님이 마하가섭에게 비밀히 전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 또한 선문(禪門)의 화두이다.

어떤 비구니가 그 ‘비밀한 뜻’을 알기 위해 조주 선사에게 질문했다. 그러자 조주 선사는 비구니의 손을 잡아 쥐었다. 조주 스님은 행동으로 직접 답을 내려준 것이다.

조주 스님이 비구니의 손을 잡은 뜻은 알기 어렵다. 노승이 비구니에게 연정을 품은 것은 더군다나 아니다. 그럼, 조주 스님의 뜻은 무엇인가? 내게 묻는다면 “아동이 옥 피리를 불고 산야(山野)는 붉은 색이다”라고 말하겠겠다.

조주 스님이 문하대중에 가르쳐 말했다.  
“나는 30년 전 남쪽에 있었는데 승당의 화룻가에서 무빈주화(無賓主話)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것에 대하여 들먹이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師示衆云 老僧三十年前 在南方火爐頭 有箇無賓主話 直至今無人舉著

30년 전 남쪽에 있을 때가 언제인지 정확하지 않으나, (조주록)을 110세부터 120세 열반 직전까지의 문답으로 본다면, 30년 전은 대략 행각말기 80세경일 것이다. 빈은 손님이요 주는 주인이다. 임제 스님의 주는 선지식이고 빈은 방문자이다. 일반적으로 주인이라 함은 자기의 주체이고, 마음을 말하며, 본래 성품을 말한다. 손님은 몸을 말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말하고, 망상을 말한다.

임제 스님은 4가지 빈주(賓主)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조주 스님은 기본적으로 주인도 없고 손님도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주인이 곧 손님이고 손님이 곧 주인이므로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망상에 대한 것도 파도가 물이고 물이 파도인지 파도와 물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다. 부처와 중생에 대한 것도 중생이 부처이

기 때문에 부처 따로 있고 중생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조주 스님의 빈주에 대한 대화는 본 (조주록) 20문에도 등장한다.

학승이 물었다.  
“화상께서 대왕으로부터 이러한 공양을 받으시고 무엇으로써 보답하시겠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염불이다.”  
학승이 물었다.  
“가난한 자라도 염불은 할 수 있습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시자야! 그 사람에게 동전 한 푼 쥐서 보내라.”

問 和尚受大王如是供養 將什麼報答 師云念佛 云貧子也解念佛 師云 喚侍者將一錢與伊

스님들이 공양을 받으면 공양자를 위해 해 줄 수 있는 것은 염불·축원 외에 달리 할 것이 없다.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염불하는 자는 곧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말이다. 중생은 이미 부처이다. 공언히 공양자를 깨닫게 하겠다고 법서를 차려놓고 상소 법문을 한다고 떠들어댈 것 없다. 그것 알고 보면 모든 부처가 웃을 일이다. 큰스님이나 작은스님이나 공양자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염불이 제일 좋다. “이 공덕으로 만복을 받으소서. 나무 야미타불!”하고 말이다.

무불선원 선원장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⑦



# 여인이라는 점이 무슨 장애가 될까? <장로니계>

지난 일요일, 청운동에 있는 ‘윤동주 시인의 언덕’을 다녀왔다. 큰 바위 앞면에는 ‘서시’가, 뒷면에는 ‘슬픈 족속’이 새겨져 있었다. 너무나 익숙한 ‘서시’ 보다는, ‘슬픈 족속’이 내 발걸음을 오래도록 붙들었다.

“힌 수건이 검은 머리를 두르고/ 힌 고무신이 거친 발에 걸리우다/ 힌 저고리 치마가 슬픈 몸집을 가리고/ 힌 따가 가는 허리를 질끈 묶는다”

자기 땅에서 다른 족속의 지배를 받고 있는 ‘슬픈 족속’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부각시키고 있다. 힌 수건, 힌 고무신, 힌 저고리 치마, 그리고 힌 띠는 모두 백의민족을 상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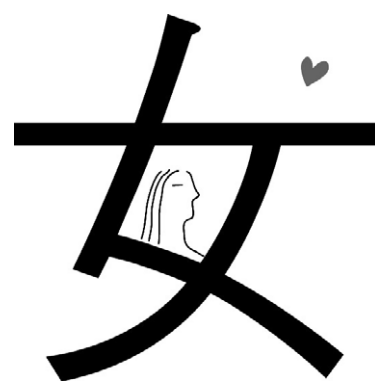
이 시에서 말하는 ‘슬픈 족속’은 그야말로 우리 민족 전체를 드러내고자 한 것이지, 굳이 ‘힌 저고리 치마’를 입고 있는 여인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닐 터이다. 그렇지만, 그런 줄 알면서도 이 시를 다시 읽어보면, ‘슬픈 몸집’을 한 족속이 곧 슬픈 여인임을 알 수 있게 된다. 아니 백의민족 전체의 슬픈 현실을 드러내는 데 남성들을 노래해도 될 것이지만, 굳이 여인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럴 때 더욱더 시작 효과가 잘 살아난다는 점은 여인들의 슬픈 역사를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닌가.

비구 스님들의 고백(장로니계)을 먼저 읽고 나서, 비구니 스님들의 고백(장로니계)을 읽게 된 나는, 이 두 텍스트가 갖는 차이를 쉽게 느낄 수 있었다. 예를 들면, 비구니스님들의 고백에는 “마음에 평안을 얻지 못하고 욕정에 사로잡혀 있던 저, 양팔을 벌린 채 울부짖으면서 정사(精舍)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비구의 고백, 비구니의 고백) 민족사, 238쪽)와 같은 시들이 드물지 않다. 물론, 정사 안에서 한 비구니스님의 설법을 듣고서는 욕망의 불을 끄게 됐고, 마침내 열반에 이르게 됐다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말이다.

여기서 ‘욕정’이 실제로 성적 욕망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여인들에 대해서 남자들이 느꼈던 두려움의 크기가 실감난다. 여자들은 성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 존재, 그래서 매우 위험한 동물이라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영화 ‘위티’에서 볼 수 있듯이, 힌두교 풍

습에서는 남편을 잃은 미망인은 남편을 따라서 같이 불에 타 죽든가 머리를 깎든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했을까. 여성에게 마리카락의 존재는 성적 매력의 상징이었다. 그 상징을 제거함으로써, 마치 출가한 구도자처럼 남자를 유혹하지 말고 조용히 살아가라 했던 것이다.

실제로 여자는 남자들보다 성적인 욕정에 더욱더 충일(充溢)한 존재일까? 답이 나오지 않았는가. 여인들은 성적 욕망이 남자들보다 더욱 치성(熾盛)하고, 그래서 더욱 위험한 존재이다. 통제해야 한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퍼뜨린 사람들



이 누구인지 말이다. 바로 남자들이다. 권력을 쥐고 있었던 남자들은 종교를 활용해 그러한 이데올로기를 더욱 강화해 간다. 여인들은 그 종교가 내세우는 궁극적 경지에는 결코 이를 수 없다고 말이다. “헤아리기가 어려워 선인(仙人)들만이 체득할 수 있는 경지를, 손가락 두 마디 정도의 지혜 밖에 없는 여인이 깨달을 수는 없다”(238쪽)는 식으로 말이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가 읽고 있는 비구니스님들의 고백에서는, 이러한 말은 ‘악마’의 말이라 규정되어 있다. 부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 뒤에 그 악마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있다. 소마라는 비구니스님이 펼쳐 일어나서 말씀하신다. “마음이 잘 안정되고 지혜가 솟아날 때, 빠르게 진리를 관찰하는 데 있어 여인이라는 점이 무슨 장애가 될까?”(238쪽) 아무런 장애도 되지 않는다.

설마, 아직도 ‘악마’의 말을 되뇌고 있는 남자(혹은 여자)는 없겠지?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주성원 기자의  
기초 교리 <2>

## 원효의 '귀명삼보'

# 귀의하는 마음 '일심' 이 곧 삼보

마음을 일심(一心)으로 보고, 돌아가야 할 대상인 일심이 바로 삼보라고 해석했다. 귀명삼보는 귀명일심(歸命一心), 귀일심원(歸一心源)이라고도 한다.

원효는 이 일심이 불·법·승 삼보로 표출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중생은 단지 번뇌가 마음을 어지럽히기 때문에 본래의 원천인 일심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원효의 시각으로 삼보는 일심이 된다. 이 말은 삼보가 따르고 신봉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일심으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중생 자신이 삼보가 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중생이 일심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이유는 ‘여섯 개의 감각을 일으키는 기관(六根)인 안근(眼根: 시각작용)·이근(耳根: 청각을 일으키는 기관)·비근(鼻根: 후각을 일으키는 기관)·설근(舌根: 미각을 일으키는 기관)·신근(身根: 촉각을 일으키는 기관)·의근(意根: 생각을 일으키는 기관)이 번뇌에 의해 마음을 어지럽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육근(六根)또한 일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승불교에서는 중생 누구나가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가르

치고 있다. 원효가 <대승기신론소>를 통해 일심이 곧 삼보이고, 중생 모두가 일심으로 돌아가갈 수 있다고 한 주장과 일맥상통 하는 부분이다.

원효의 귀명삼보에서 불보(佛寶)는 지혜로운 마음에 의지해 마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고, 큰 자비심으로 세상을 구하는 자라고 봤다. 법보(法寶)는 부처의 몸 그 자체인 동시에 법의 본성을 바다와 같은 것이라고 정의했다. 깊고 넓으며,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승보(僧寶)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깨달음을 향해 수행 정진하는 구도자라고 봤다. 특히 원효는 승을 대승의 보살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로 풀이했다.

일심이 곧 삼보라고 정의한 원효의 사상은 바꿔 말하면 마음이 곧 삼보라는 뜻이 된다. 즉, 삼보는 우리의 마음이다. 따라서 불멸성을 나누어 생각할 것이 아니라 원효의 주장처럼 자신의 마음을 삼보로 여길 필요가 있다. 삼보에 귀의하는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부처가 되기 위함이고, 그렇게 된다면 그 순간 중생이 곧 불멸성 삼보가 되기 때문이다.

주성원 기자 jsw@hyunbul.com

# 부처님 여래후 2500년 방편불교시대는 비구니 보살들은 성불득도는 없는 것을 임진년 천년이 시작 본문 불교로 영육이 하나되는 오로체를 넘어 견성득도 하는 불안 법안 심안 령안 도안을 얻는 천안통 대법회

지구촌 천지개벽으로 동방의 빛이 지구촌을 비추니 대한민국 운이 전세계를 비추어 만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하늘이 내리신 대자연의 이소스레 도를 통한자만이 아는 시대가 오는 것이며 즉, 피라미트인 생명인 것이다.

◆만약 득도를 원하는 비구니나 보살들이 있다면 그 핵심인 오로체인 근본을 벗어나 성불 득도하여 일심 성불하는 법이 진광을 보는 경신 수행 법인 것이다. 경신이란 태양계 안의 핵심인고로 오직 오로체를 넘는 법은 고집 멸도 공을 넘어야 생명의 주인공이 자성을 보고 자성이 자기집에 들어 다니는 현관을 보아야 자기손안의 15진주를 알고 내가 누구인 것을 아는 것이 견성 성불 즉 일심 성불인 것이다.

◆고의 중생을 괴롭히는자는 누구인가 집은 그것은 귀신의 집단인 것이다. 멸은 모든 법이 멸 했기에 모든법이 전도 되어야 하는데 멸도인고로 도는 귀신을 타이르고 다스리는 혈단법을 살려 모든 법이 방편을 넘어 멸한 도를 다시 일으켜 앞으로 살아갈수 있도록 진도해야 한다. 공은 무엇인가? 태양계 지구촌 모든 생명을 담은 몸은 형상에 불과하므로 자신의 진성을 찾아 육도 윤회를 벗어나야만 오로체인 핵심을 넘어 문자나 화두 정진으로 찾지 못하는 공공을(공)에 감추어진 말과 글을 넘어 태양계 내주인인 심나찰려가 전생업 금생업 내생업을 경신일 자시와 오시에 태양의 빛으로 유아 독존을 본자만이 삼세가 일체불이나라.

모범 새로운 본문 불교시대에 지계수복자에의하여 광덕우포하는 필만사천 경의 귀반경이 반야 심경이고 반야 심경의 핵심이 옴마니 반메출인고로 옴마로서 자신을 찾아 영육이 합하여주는 심나찰려와 하나되는 주문에 만법이 들어있는 마음심 신자에 근본 소식인 이법은 태양계 안에 있는 생명의 근본 지리는 하늘 땅에 감추어진 법은 비복자 따로이지 않는자에는 전해도 안되고 주위도 안되는 비밀법인 즉 벽지 불인 것이다. 천지공사 비밀은 살아서 견성득도 성불하여 천하 제일의 도인으로 수행 장수 부귀 영화를 누리며살수있는 천지공사 팔사공 도천명 천도 태혈의 진법이요.

명부공사의 비밀은 집안이나 문중이 명이 짧아 득도하고 나서 사용도 못하고 가난을 면하여 살만하면 저승사자가 데려가는 생명을 연장하는 비법인 것이다. 지부공사의 비밀은 과거 조상님들의 묘나 생사를 모르고 효도하고 싶은 분 족보도 없이 지내는 분들은 금년 윤달때에 효도하고 자손된 도리를 다할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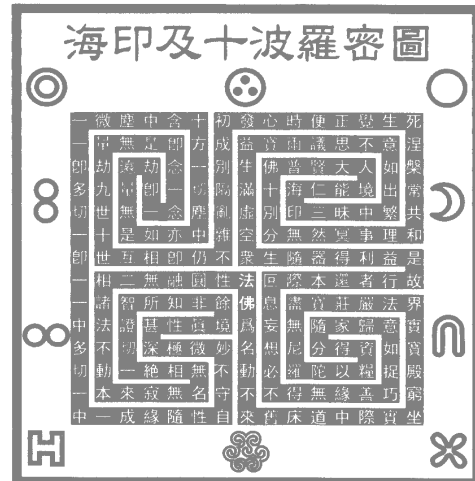
◆대용맹정진 수행하는 곳에서 생명의 빛이 해안을 열고 마음을 열고 생명문을 열고 정신과 신심의 문, 현관의 문을 열어 운수 대통 팔자와 운명이 바뀌어 천하를 다스리는 천지공사 죽음의 뿌리를 끊고 시공을 넘어 견성도통으로 병없이 사는 이 수행법은 한번만 하여도 수십년에 수행 능력을 얻는 도통법인 것이고 120세에 도전하는 것이다.

### ▶중단소식◀

2012년 1월 31일까지 본종단 신분증 갱신이 없는 자는 모두 제명체탈 되었기에 각 사암 사찰에서는 신분증 유념할지이다. 제명자 명단: 태현, 정수, 명제, 일우, 일지, 일진, 일중, 장천호, 수경, 현성, 일선, 정순복, 전영순, 배성호, 김명수, 명진 등 상가자들은 제명 되었음.

- 입제: 양력 2012년 2월 28일(음 2월 7일 화요일)(해시)
  - 해제: 양력 2012년 2월 29일(음 2월 8일 수요일)(해시)
  - 상담전화: 02)821-6622, 02)821-7767, 010-3239-3110 FAX 821-7768
- 전월7호선 신대방삼거리역하차 농협지나 300M 두번째 건물목 건너 약사회 골목 우측 서울과부산동시법회: 부산직할시 금정구 정전3동 경문사 도량 상담전화: 051)635-3110 / 010-8533-1601 보현합장 사단법인 대한불교달마조계종교육원 천지공사용조미특달마 경신도통회 신통세계불교달마중흥본산환성태일합장

# 義湘大師法性偈十波羅密圖의상대사십바라밀도



法性圖所持者 成就一切萬法 법성도 소지자는 일체만법이 성취하고

消滅一切障礙 神鬼一切不侵 일체장애가 소멸하며 일체잡귀가 침범 못한다.

특허등록 (30-0607637)

우주삼라만사 진리의 부처님 대승법이 모두가 법성도에 있습니다

수공안지에 획획나무 열매로 염색한 괴황지에 특수 제작함. 옛날부터 불경을 사경할 때 획획나무 열매로 염색 특이 염염한 부적 사경시 중이는 꼭 괴황지에 경만주사로만 사용 어떠한 부적보다 천만배 수승한 염염과 공덕이 있다.

액자용 부처님 점안 복작용 괴황지 판매합니다.

大方光佛華嚴經 법성도십바라밀도 지극한 기도정성으로 제작 법성원

전 화: 1688-7671 / 010-8258-9963 홈페이지: www.bswon.com 은행계좌: 837026-56-062884 (농협 이상경)